

## “무너진데를 수보하는 자들”

엄 성현목사

본문: 이사야 58 장 12 절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1. 복습-위선적인 예배, 머리로만 하는 예배, 생활과 동떨어진 예배-마음으로 깨달아서 일상 생활의 방향, 내용이 나 중심에서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지는 예배

- a. 변화된 생활로 드리는 예배-내면의 성품과 인격이 탈바꿈되는 삶보다 더 크고 의미있는 예배란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
- b.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삶이다.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하던 삶(나의 구원, 내 가족, 내 교회)에서 고통, 어두움, 삶의 그늘진 곳에서 고독함과 빈핍함으로 살아가는 이웃들을 헤아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삶이다.
- c. 주신 축복을 응겨주는 삶으로 영적으로 죽은 삶에서 주신 축복을 널리 펼쳐 나누는 삶을 삶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으로 바뀌어 지는 삶이다.
- d.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데서 오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커졌기 때문에 오는 결과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판단과 용납에 더 전전긍긍하는 삶을 버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듯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삶이다.

2. 본문의 배경:

오늘 본문은 매우 예언적이다. 기원전 750 년전에 존재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속인들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물질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영적 위기의식을 절감했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는 커녕 도리어 그들의 것들을 탈취하는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오직 자신들만의 쾌락과 번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적나라하게 조명한다. 그러면서도 버젓이 일주일마다 한번씩 성전에 가서는 금식기도를 올리고 예배하면서 경건한줄로 착각하는 이스라엘의 위선을 가슴을 치며 통탄하고 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파 헤쳐 깨치시고 산산조각나도록 하시면서까지도 그들의 망가진 영혼들을 깨우쳐 새롭게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을 피를 토하듯하는 절규로 나누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만약 하나님의 마지막 하시는 호소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앗수르, 바벨론, 메데 페르샤를 통해서 철저히 치시고 훈련하시겠다는 그 유명한 예언도 이사야를 통해 하셨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가 이렇게 치고 때리고 부스끼며 단련하시고 호되게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만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황폐되고 망가진 곳에 오셔서 어떻게 회복의 사역을 시작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다. 이사야서는 경고의 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희망의 책이기도 하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한 비준을 이사야서는 전해 준다.

3. 무엇이 무너졌는가?

무너진 곳을 고치려면 우선 무엇이 무너졌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잘되고 번영하는 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위기와 파멸의 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우선 망가지고 부서진 나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 문제의식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탓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쏘아대는 죄악적인 패턴이 끊어져야 한다.

a. 내 안에 우선 원망하고 불평, 분노, 증오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남을 정죄하는 교만으로 하늘까지 치솟은 답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닮은 겸손의 답을 다시 쌓아야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쌓아질 수 있는 성벽이다.

b. 이기심으로 딱딱하여진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 져야 한다. 내 아픔만 생각하고 남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기심의 장벽이 무너져야 한다.

c. 교만으로 원망하던지, 아니면 자학으로 자책하는 건강하지 못한 극에서 극으로 가는 패턴을 오늘 당장 멈춰야 한다.

(2) 망가진 인격들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과 사람과 동역(teamwork)해야 한다.

a. 우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자신을 보아야 한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깊은 내면의 망가진 자신을 볼 수가 없다. 희 4:12 절, 느헤미야 1:4;2:4 절, 느헤미야 2:12,13,15; 4:9;에스라 8:23 절

b.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가진 영혼을 회복해 주시는 축복의 손길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느헤미야 2:20;4:14;6:16

c. 마음을 다하여 영혼의 단단한 성벽을 쌓는 일에 전심 전력해야 한다. 모든 시간과 애정, 자원을 바쳐야 한다. 느헤미야 4:6,21

“죄인의 방어의식(defense)이나 공격의식(offence)으로 높게 쌓여진 아성의 벽을 깨뜨리는 것도 성령, 말씀, 기도밖에는 없다.”

“말씀이 없으면 영혼의 자양분은 고갈되고 결국 그 공허함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들로 채우게 된다. 이것이 중독이다. 마약이던, 도박이던, 술이던지, 아니면 컨트롤이던지, 남의 인정이던지 간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인생은 채우지 말아야 할 것들로 채워지게 된 중독된 인생이다. 중독된 삶은 공허하지만 쓰레기같은 쓸데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상처난 기억들, 차고 넘치는 오물창고다.냄새나고 잡음으로 씨끄러운 도매기 시장같은 인생이다.”

d. 공동체가 잊혀졌고 그래서 먼지가 쌓인 말씀을 되찾아서 다세대가 함께 읽고 깨달았다. 온 청중이 열심히 말씀을 경청했다. 느헤미야 8 장 1,2,3,5,8

e. 말씀을 들으며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며 울부짖는 시간을 가졌다. 느헤미야 8 장 9 절

e.교제의 즐거운 떡을 나누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오직 유일의 힘과 낙임을 깨달았다. 느헤미야 8 장 10 절

f.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이 넘쳤다. 느헤미야 8 장 12 절,

- g. 금식기도하면서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악들까지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성령운동이 펼쳐졌다. 느헤미아 9 장 2 절, 에스라 10 장 1 절; 에스라 10 장 11 절
- i. 결혼의 회복, 가정의 회복, 안식일의 회복이 일어났다. 느헤미아 10 장 28-31, 신명기 7 장 3,4; 고후 6:14 절; 아모스 3:3 절
- j. 믿음의 공동체가 예배의 놀라운 기쁨을 체험했다. 느헤미아 12:43 절

4. 영적 지도자의 자질들-에스라 7 장 10 절, 6 절

- a. 깊은 말씀 연구
- b. 주의 율법(가르침, 계명)을 순종하는 삶
- c. 말씀과 계명을 가르치는 삶
- d.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자
- e. 용기를 가진 자-에스라 7 장 28 절
- f. 지도자들을 모으고 함께 추진하는 자-에스라 7 장 28 절
- g. 백성의 죄악을 위해 기도하되 자신도 포함시켜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자-에스라 9 장

5. 영적 평신도들의 자질들-에스라 9 장 1

- a. 이방 사람들의 구역질나는 행실에서 자유함. 에스라 9 장 1 절
- b. 기도의 사람,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뉘우치는 사람(느헤미아 1 장 4 절
- c. 국가의 운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 d. 다른 사람을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느헤미아 2:12
- e.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 자-느헤미아 2:20 절
- f. 상황을 치밀하게 살펴서 아주 정확한 작전과 계획을 세우는 자들-느헤미아 2 장 13 절, 15 절
- g. 열정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수고하는 자-느헤미아 4 장 21 절,